



정읍시청 직원들, 암투병 동료 위해 성금 모금

정읍시청 전 직원들이 대장암으로 투병 중인 동료 직원을 돕기 위해 1000만원이 넘는 성금을 모금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투병 중인 동료직원은 건강재활과에서 근무하는 A씨다. A씨는 지난해 배우자 간이식 공여를 위해 검사를 받던 중 심장중격동 종양과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아 올해 초 대장암 수술을 받고 회복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과 배우자의 치료에 필요한 고액의 수술비와 입원비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 운동을 펼쳐 1143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성금은 직원들을 대신해 순회경 보건소장과 김대원 시 공무원노조위원장이 지난 24일 A씨에게 전달했다.

순회경 소장은 "동료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담은 성금이 A씨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과 함께”

제25회 전북여성대회 개최... 도·시군 35개 여성단체 등 400여명 참석

전북자치도가 양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과 함께 지속가능한 정책실현을 위해 여성 화합의 장을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사)전북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곽미자)와 함께 25일 군산웰빙체육관에서 제25회 전북여성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는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김임준 군산시장, 허명 한국어상단체협의회장 등과 14개 시군 여성단체협의회를 포함한 도내 35개 여성단체 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여성대회는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전북 여성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공유와 결속력 도모 등을 위한 화합의 자리이다. 올해는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과 함께'라는

주제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도내 여성이 함께 앞장서겠다는 다짐의 기념식과 도와 시군 여성단체 네트워크 구축과 단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전북자치도는 성평등기금, 여성분야 활성화사업, 도 및 시군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인명영화제 등 다양한 여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여성단체가 서로 협력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차외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 여성들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새만금 김제시민연대, 새만금 동서도로 환경정화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위원장 강병진)회원들이 25일 새만금 동서도로 누리생태공원 일원에서 환경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김제시 취약한 폐기물 지원사업 근로자 및 시청 공무원 등 50여 명은 봄철 방문객이 증가한 새만금 누리생태공원 일대 약 3km 구간을 이동하며 생활쓰레기 및 해양폐기물 등을 수거했다.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1686-14번지에서 심포리 2420번지 새만금호 방조제를 잇는 새만금 동서도로는 지난 2020년 11월 24일 개통된 지 4년째에 접어들었음에도 관함이 결정되지 않아 쓰레기 수거 등 지자체의 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제시민 및 사회단체가 앞장서서 주기적으로 환경정화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도동동 지사협, 소외계층 밀반찬 나눔

남원시 도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소선자, 서덕교)는 25일, 위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소외계층 17가구의 안부를 살피고 밀반찬 나눔 사업을 펼쳤다.

이번 밀반찬 나눔에는 김상태 조아무 위원이 참여해 정성껏 마련한 반찬을 전달했으며, 김상태 위원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는 정성 담은 한끼 식사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전했다.

도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고 살뜰히 보살피는데 힘써 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특화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익산글로벌문화관, 무안 방문객의 특별한 기증품 수령

익산시는 익산글로벌문화관을 방문했던 한 방문객으로부터 생각지 못한 귀중한 선물을 받았다.

25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익산글로벌문화관에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온 택배 상자가 도착했다.



상자에는 "잘 보관하고 있던 옷을 보낸다"며 "익산글로벌문화관 다문화 사업에 작은 도움이 되면 한다"라는 따뜻한 손 편지와 함께 인도네시아의 바티(Batik)과 전통 의상이 담겨 있었다.

바티는 인도네시아의 전통 방염 염색 기술이다. 화려하고 상징적인 문양을 의미하기도 하며,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익산글로벌문화관은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특성을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된 전시·체험 공간이다.

이번에 기증된 물품은 전시 및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라카카니카(태국) 세계 문화해설사는 "소중한 선물을 받게 된 만큼 감사한 마음에 보답하고자 더 많은 분께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정 여성가족과장은 "전통 의류, 장신구 등 다양한 유형의 물품을 기증해 주시면 세계시민 교육자료로 활용해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하겠다"며 "익산글로벌문화관이 앞으로 명품 체험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남원 대강면, 복지기동대 분과 통합사례회의

남원시 대강면(면장 김종표)은 지난 3월 15일 구축한 복지기동대 분과의 제2차 통합사례회의를 25일 실시했다.

대강면 복지기동대(16명)는 면장인 김종표 기동대장을 주축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통합사례회의를 거쳐 공공·민간 자원을 연계해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발굴한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독거노인으로, 보일러 고장 수도 누수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원활하지 않아 집수리, 건강관리 지원이 우선 요구되는 세대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도동동, 전남 구례 산동면과 협약 체결

남원시 도동동(동장 소선자)은 지난 24일, 전남 구례군 산동면(면장 안상남)과 현안 사업 및 각종 행사 추진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산동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밀접한 상호 교류를 통해 각 지역의 행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각종 정보를 활발히 교류해 양 지역의 관광사업 등 현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이번 협약식을 추진하게 되었다.

협약에서는 양 기관이 추진하는 행사 및 사업홍보와 사업 홍보 설명 및 플래카드 사진 촬영, 각 실과소에 홍보물 및 포스터 비치, 청사 내 홍보방송, 각 행정복지센터에 홍보물 발송 및 이통장회의 등 주민 대상의 홍보 등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광역자활센터, 무주군서 자활상품 순회 장터 열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2024년 자활상품 시·군 순회 무주군 장터가 지난 25일 무주군청 후정에서 열려 성공을 이뤘다.



전북광역자활센터에서 주관하는 '자활상품 순회 장터'는 매년 도내 14개 시·군을 순회하며 지역자활센터 사업단과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각종 제품을 홍보·전시·판매하는 행사로, 무주군 장터에서는 무주지역자활센터를 포함한 도내 24개 지역자활센터 사업단과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두부와 빵튀기, 초코파이, 포도과자, 누룽지 과자, 청국장 등 식 가공품과 친환경 비누, 가죽 수공예품, 방한재, 예곡백 생활용품 등 총 30여 종이 전시 판매됐다.

무주지역자활센터 권삼일 센터장은 "자활생산품은 양질의 원재료를 사용해 제품의 질이 우수하고, 유통 마진이 없어 가격이 저렴하다"고 전했다.

이날 장터를 찾았던 주민 김 모 씨(51세, 무주읍)는 "우연

히 군청 옆을 지나다가 들렀는데 좋은 취지의 행사라 구경도 하고 저렴해서 먹거리며 생활용품을 골고루 구입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농협 순창군지부, 장애인의 날 이웃 사랑 실천

N농협은행 순창군지부(지부장 이병희)는 지난 24일 순창군 제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장애인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240만원 상당의 생필품 및 사랑의 쌀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이병희 순창군지부장은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함께 살아가는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순창군 5대 국정 목표 중 4번째인 '따뜻한 복지' 실현 능력이 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정읍 보건소,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 등급 평가

정읍시가 식품제조·가공업체의 효율적이고 자율적 위생 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평가에 나선다.

시는 오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영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 8개소 △신규평가 후 2년이 경과한 업체 평가평가 81개소로 총 89개소다. HACCP(해썹) 인증업체와 영업 등록 1년 미만 업체는 제외된다.

평가 항목은 △업체 현황에 대한 기본 조사평가 45개 항목 △식품위생법령 준수에 관한 기본관리평가 47개 항목 △우수시설 및 품질관리방법에 따른 우수관리 평가 28개 항목으로 총 120개 항목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체, 일반관리업체, 중점관리업체로 분류, 자율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무주노인종합복지관, 인지활동 프로그램 진행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홍교)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서 인지활동프로그램 '두뇌활동 강화 꿀팁' 프로그램을 4월 25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대상지의 고령화로 인지는 저하를 막기 위해 인지활동프로그램 '두뇌활동 강화 꿀팁'을 진행하고 있다. 치매사전검사를 통해 치매조기발견을 지원하며, 의심 증상이 무주군치매안심센터에서 검진도록 안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숙면이 치매에 큰 도움이 되기에 이부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대상자가 직접 만든 디퓨저를 비치해 숙면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생활지원사 103명이 무주군 6개 읍·면 대상자 1,543명의 가정으로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대상자 개별맞춤으로 교육을 제공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시, 환경 정화 '클린김제만들기' 활동 펼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 전역을 대상으로 사회단체·시민단체 및 공무원 등이 힘을 합쳐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한 '클린김제만들기'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환경 정화 활동은 38개의 지역 사회단체, 주민단체와 공무원 400여명이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가 자주 발생하는 취약 지역을 돌며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도로변의 어지러운 환경을 정비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모악산 뮤직페스티벌, 보리밭 축제 등 지역 축제를 앞두고 김제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청정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하도록 독려하는 캠페인을 병행 추진하여 평소 깨끗한 거리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중기중앙회 전북본부, 순창군에 은누리 상품권 기탁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강우용)는 지난 24일 순창군청을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은누리 상품권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강우용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박병모 가구협회장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우용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은 "이번 기부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위안과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일 군수는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은 우리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